

제2차 KDI-OECD 공동연구 ‘디지털경제 및 규제혁신’ 관련 2차 세미나

2019. 12. 08. - 13.



1 배경 및 목적

- 디지털화는 미래경제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3대 핵심요인 중 하나로서, 향후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에 따른 패러다임적 전환**을 예고
 - 디지털화는 기술을 넘어 경제관계, 사회변화, 나아가 정책구도에 있어 본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바 이에 대한 **규제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 이에 KDI는 상기 주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관련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제2차 KDI-OECD 공동연구인 “디지털경제 및 규제혁신: 규제의 미래”**를 추진
 - (1차시기: 2018~19년) 디지털 경제로 인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2차시기: 2020~21년) 사례연구: 핀테크(스마트 컨트랙트), 공유경제, 데이터 경쟁법, 스마트 유통
 - ※ KDI와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9월에 최종보고서인 “규제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을 공동저자로 출간
- 따라서 “디지털경제 및 규제혁신: 규제의 미래” 연구 수행을 위한 시발점으로 2019년 6월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주제의 범위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에 2019년 12월, 주제별로 6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행방향을 논의하였음.
- 또한, OECD 담당자 및 외부 연구진과의 원활한 향후 연구일정 논의 및 행정업무 조율 등을 위해 본 출장을 계획 및 완료하였음.
- 추가적으로, 공동연구 주제와 관련된 프랑스의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연구에 반영할 예정

2 출장 개요

- 예 산: 디지털 경제와 혁신 친화적 규제
혁신친화적 규제개선의 인프라 구축
- 기 간: 2019년 12월 8일(일) ~ 13일(금),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총 5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2	홍자경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전문연구원
3	이주원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연구원
4	서용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5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단, 상기 출장자 중 박건수(서울대)는 12월8일(일)~11일(수), 서용원(중앙대)은 12월8일(일)~12월12일(목) 일정

3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2.8 (일)	13:30	인천 출발(KE 901)	· 서용원, 박건수, 홍자경 * 김정욱, 이주원은 런던에서 비행기 이용 파리 도착
	18:00	파리 도착	
12.9 (월)	14:30~17:30	KDI-OECD 공동연구 제2차 세미나	· 장소: OECD 회의장
12.10 (화)	10:00~12:00	CNIL과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련 면담	· 장소: CNIL 회의장
12.11 (수)	10:00~12:00	OECD SOE 관계자 면담	· 장소: OECD 회의장
12.12 (목)	21:00	파리 출발(KE 902)	· 출장자 3인 (김정욱, 홍자경, 이주원)
12.13 (금)	15:55	인천 도착	

4 주요 논의내용

▲ 1. KDI-OECD 공동연구 2차 세미나

- 개요
 - 일시: 12월 9일(월) 14:30~17:30
 - 장소: OECD 회의실
 - 참석: Rex Deighton Smith(OECD/ITF), Nick Malyshev 국장, Anna Pietikainen 팀장, Miguel Amaral 수석경제고문(OECD/GOV), 서용원 교수(중앙대), 박건수 교수(서울대), 김정욱 센터장, 홍자경 전문위원, 이주원 연구원(이상 KDI)
- 면담 주요 내용
 -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의 Rex Deighton Smith는 ride sourcing service의 개발로 인해 제기된 규제 과제와 여러 국가에 걸쳐 구현된 규제접근법에 대한 사례 연구 초안을 제시하였고, 김정욱 센터장(KDI)은 'Sharing Economy and Policy Implication from the Korean Experience'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물을 발표
 - 그리고 'Regulatory Changes for Technologies and Business Models for Smart Logistics in Korea(박건수 교수, 서울대), 'A Study of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Smart Contract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김정욱 소장, KDI), 그리고 'Study on Data Law in the Age of Data Economy: with the Focus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ata Competition Law' (김정욱 센터장, KDI)의 발제가 이어짐.
 - 서용원 교수(중앙대)는 AI를 활용한 규제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제하였고, 본 연구과제는 NER/RPC의 계획(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설계와 실행)과 연계가 되어 있음.
 - KDI와 OECD는 위의 사례 연구 주제들이 완료되면 'Future of Regulation'이

라는 제1장 초안을 집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그리고 이외에도 앞으로 KDI-OECD 공동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들을 논의하였음.

- NER은 경제관련 규제기관들에 대해 새롭게 개발되는 디지털 혹은 기술들이 미칠 영향과 규제기관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결과들은 KDI-OECD 공동연구의 사례들과 함께 발간될 예정임.

- KDI 연구진은 파리 OECD(과학기술 혁신국)에서 2020년 1월 13~14일에 걸쳐서 개최되는 the OECD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 - Toward Agile Regulatory Frame Work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초대되었음.

- 2020년 4월에는 RPC 및 NER 회의와 더불어 규제와 신기술에 대한 RPC/NER 토론회가 함께 개최되는데, 여기에 KDI-OECD 공동연구의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임.

- 2020년 4월, RPC/NER Steering Group의 세 번째 회의는 Intelligent Regulation Management System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운영그룹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임.

- 지난번 RPC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의 초안들이 발제되었음.

- ① A mapping of OECD works on regula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 ② A draft concept note on the use of algorithms and (big) data for evidence-based regulations;
- ③ A draft survey on experiences with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related to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use of (big) data and new analytical tools to the design and the evaluation of regulations.

○ 향후 일정

- 2019년 12월 20일: OECD측의 사례연구 outline 제출

- 2020년 3월: 모든 사례연구의 초안 완료

- 한국에서 진행될 KDI-OECD 공동연구의 다음 회의 일정 조율

○ 다음 KDI-OECD 공동연구의 회의에서는 모든 사례 연구들을 발제하고, 서론

(규제의 미래)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보고서 발행 및 최종 세미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2.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CNIL) 면담

□ 개요

○ 일시: 12월 10일(화) 10:00 ~ 12:00

○ 장소: CNIL 회의실

○ 참석: Sorhie Bory, Emille Brunet 정책 담당관(CNIL), 서용원 교수(중앙대), 김정욱 센터장, 홍자경 전문위원, 이주원 연구원(이상 KDI)

□ 면담 주요 내용

○ 한국의 개인정보 이슈는 10년 이상 동안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주제로 해답이 필요한 상황임.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사용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함.

- ICT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등의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데이터 정책 수립에 아직 미흡

- 금융, 의료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보호 정책이 매우 강력한데,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보호할 권리, 사용할 권리 등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보호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오래된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EU 국가들에게는 GDPR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CNIL은 프랑스 안팎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GDPR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

- CNIL은 공공, 그리고 민간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정부기관임.

- 정부기관으로 총리실 산하 기관이며 예산 또한 총리실에서 부여받고 있음.

- CNIL에서는 17명(4명의 의회의원, 2명의 프랑스 경제, 사회, 환경 의회 구성

원, 6명의 법조인¹⁾, 그리고 5명의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²⁾)으로 이루어진 멤버들이 모여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나눔.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CNIL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기도 함.
- GDPR로 인해서 법이 최근에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CNIL이 해야할 상당수의 미션들이 있으며, 이러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GDPR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 GDPR의 적용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이슈를 조율하고 해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으나, 프랑스와 CNIL은 과거 몇 년 동안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CNIL의 기관을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EU 국가들 역시 각기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GDP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국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절충 및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CNIL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접수 받는 부서가 있으며, 여기서는 회사조직, 전문 기관, 국제 기업 등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접수된 문제에 대해 피드백 제공과 허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 이러한 특성을 지닌 CNIL은 유럽 내에서 프랑스에만 있는 고유한 조직이며, 개인정보, 법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엔지니어, 연구자(AI, 빅데이터 등) 등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조언을 함.
- CNIL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GDPR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고, 교육도 진행하여 기업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GDPR의 준수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사항이 생긴 것으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CNIL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톨을 제공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련된 톨도 계속해서 개발(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 중임.

- GDPR은 EU 레벨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민간경제와 개인정보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디에든 적용됨.
- EU안에서 적용되지만, EU 기업 뿐 아니라, EU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국제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GDPR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현재까지의 CNIL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안건들 처리 내역은 불만 1000건, 100건 이상의 조사 30건 이하의 제재가 있었는데, 이 중 구글에 대한 제재가 매우 큰 것이었으며, 주로 경고를 먼저 조치하고 있음.
- 데이터를 재화로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은 해답을 찾는 중이며, 프랑스에서도 역시 GDPR의 적용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지 않는 경우, 이것을 엄청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프랑스 뿐 아니라 EU에서도 논의 중임.
-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는 팔 수 없으며, 여기에 대부분 매우 민감함.
-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개인은 보호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CNIL로부터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받고 있으며, GDPR의 준수가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가장 중요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가 이 시스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 경쟁 시장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있어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GDPR이 의도하는 바임.
- 그러므로 기업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함.
- 데이터 마켓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KDI-OECD 공동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로 소개하였고, 여기에 대해 CNIL에서는 프랑스의 의료정보를 사례로 소개하였음.
- 의료정보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더 강력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건강관련 데이터도 이와 마찬가지로.

1) 2 State Council members, 2 members of the Court of Cassation and 2 members of the Audit Court

2)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1 public figur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1 public figure), the French Cabinet (3 public figures)

- 의료 데이터 이외에, 일반 데이터를 모으는데 있어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은 더 강화되고 있음.
 - 한국도 마찬가지로 의료데이터는 민감 데이터이며, 병원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어떤 것이 민감 데이터인지, 그리고 의료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음.
 -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결정하는데 매우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며, 한국 보건복지부는 데이터의 성격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서 의료기기 출시가 늦어지는 등 의료관련 산업(혹은 신산업) 활성화에 장애를 겪고 있음.
- EU의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의 사용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임.
- 과거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특정 분야에서 보안 데이터들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였으나, 현재의 원칙들은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보다 유연하고 민첩해야 함.
 - 그러므로 모든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 유연하게 그러나 통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3. OECD SOE 관계자 면담

□ 개요

- 일시: 12월 11일(수) 11:00 ~ 12:30
- 장소: OECD 회의실
- 참석: Mathilde Mesnard 금융정책국 국장, Chung-a Park 연구원, Sara Sultan 연구원(OECD SOE팀), 김정욱 센터장, 홍자경 전문위원, 이주원 연구원(이상 KDI)

□ 주요 내용

- 한국의 공기업들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신용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낮은 이율로 은행에서 부채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며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적격 대상이 아님.
 - 공기업 주도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생산성의 저하를 나타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기업 생산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베트남의 공기업 관련 연구, 그리고 다른 동남아 개도국들의 공기업 관련 연구에 한국의 공기업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 베트남의 경우, SOE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며, 베트남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KDI ADB OECD 공동연구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지난달 서울에서 이미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일정에 대해서는 2020년 3~8월, 10~12월, 혹은 2021년이 거론되었음.
 -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고려하여 추후 이메일 등으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함.
 - 관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형식, 세미나, 혹은 이미 계획 되어 있는 세미나 참여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OECD는 SOE 리뷰, 효율성 등에 대해서 개도국(동남아, 남미 등)과 일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SOE 거버넌스 확인을 위해서 하노이에 방문하였고, 계획투자부(베트남)과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임.
 - 연구에 대한 논의는 꽤 진행된 상태이며, 베트남 KDI OECD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KDI의 기존 연구 경험을 소개하였음.(ADB 보고서, KSP 사업 등)
 - OECD도 베트남 및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국가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SOE 네트워크가 8월 자카르타에서 진행될 예정임.

- OECD에서는 주로 SOE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고 KDI는 각 이슈들에 대한 제언을 제공함.
- 한국은 각 SOE(KEPCO 등)와 개별적으로 일을 함께 하며, SOE와 관련된 위험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며, SOE 구조, 성과에 대한 분석도 진행함.